토속어 지방어에 대하여
-이문구의 소설 언어-

송하춘 · 소설가·고려대학교 교수

1.

이번 호에는 이문구 씨의 소설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그만 존칭은 생략하고, 이문구는 문체가 아주 독특하다는 점에서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그래서인지 이문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는 '아, 그 시골말 많이 쓰는 사람, 혹은 사투리를 많이 쓰는 작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문구는 농촌 또는 농민들 이야기를 즐겨 다룬 작가이다. 그래서 그의 소설이 농촌 소설이냐, 농민 소설이냐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평생 동안 그가 나고 자란 고향 이야기나, 오늘의 시골 이야기를 많이 썼다. 그리고 그 시골이 다름 아닌 농촌이어서 사람들은 그의 소설을 농촌소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문구는 농촌의 이야기를 하되 현지 농민들의 언어를 풍부하고도 익숙하게 구사하여 성공을 거둔 작가이다. 시골 농민들의 삶을 그리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사용하는 현지 언어를 물감으로 선택하여 쓰는 일이 중요하다. 화가에 비유하자면 이문구는 아마 그런 화가에 해당할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산 섬세한 화필보다는 시골 농촌에서 채취한 투박한 언어들, 그것들이 그대로 농촌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데, 나아가 그것들은 그 농촌이 키워낸 작가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런 이문구의 소설 언어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토속적이라고 말한다. 서울 도심이 아닌 지역 향토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뜻이겠는데, 그 향토성 또는 토속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선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본다.

> 더 영글 눈발이 소나기지면서 잠 씻은 밤이 이우는 섣달이라 기댈 건 화로하고 다시 없으련만, 또 무슨 추위든가 횃대 밑에선 벌써 닝닝한 화로 냄새가 돈다. 고주배기 등걸불이 청솔가지 쪄다 땐 재보다 쉬 자는 건 알지만 여태껏 부손이 닳창나게 쑤석거려댄 탓일 터였다. 공식이 녀석은 그토록 숟갈 놓고부터 고구마를 구워먹고도 여직 양에 덜 갔는지 남은 불씨마저 화로 귓전에다 몬다.

이문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암소』의 첫 대목이다. 이 소설을 학생들에게 읽혔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어렵다'고 반응한다. 이때 '어렵다'는, 그것이 영어 문장 같아서 단어가 어렵다는 뜻인지, 문맥이 까다롭다는 뜻인지,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쩌면 세 가지가 다 걸친 문제일지도 모른다.

먼저 '영글다', '이울다', '닝닝하다', '고주배기', '등걸불', '쪄다', '부손', '닳창나다' 등 낱말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단숨에 척 들어오지 않고 마치 영어 단어를 찾듯 국어사전을 들춰보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사전을 들춰보기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니까, 내가 모르는 문장일 뿐 난해한 문장은 아닐 수도 있다. 그것들은 다만 지역이 달라서 내가 쓰지 않았을 뿐이고, 쓰지 않아서 낯설게 보였을 뿐이다. 그뿐, 시골말일지언정 사전에도 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 언어도 사람과 같

아서, 출신이 시골이라고 신분조차 표준어가 못 되란 법은 없다. 도시로 자주 나오지 않고 시골에만 처박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단어들도 찾아보면 국어사전 안에 엄연히 다 들어있다. 말하자면 사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표준어는 표준어인데 지방에서 쓰는 표준어인 셈이다. 구태여 표준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지방어'라고 하면 될지도 모른다. 지방어 가운데서도, 작가가 충청남도 보령 출신이니까, 보령 지방어라고 말하면 아주 정확할 것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작가의 고향 친구들이 그를 가리켜, 이문구는 거기 사는 자기네들보다 순수 고향 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 이문구의 토속적인 언어가 그만큼 순수 원형성을 갖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다음, '더 영글 눈발이 소나기지면서'라든지, '화로하고 다시 없으련만' 등에서 보는 그 지방 특유의 어투(語套)는 더 어렵다. 예를 들어, '더 영글 눈발이 소나기지면서'에서 '영글 눈발'은 함박눈처럼 커질 눈송이가 아직 덜 부풀었다는 뜻인지, 그래서 아직은 푸실거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인지, 그런데 왜 그 눈발이 '소나기진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때 '소나기진다'는 진짜 소나기처럼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직 눈발이 덜 여문 채로 줄기차게 쏟아지는 싸락눈을 가리키는 말인지, 솔직히 그 장면을 떠올리기 어렵거니와 의미도 선명하지 않다. '잠 씻은 밤이 이우는 섣달'은 비교적 의미가 선명한 편이다. 섣달은 그렇잖아도 밤이 깊은데, 씻은 듯이 잠은 달아나고, 그 밤이 깊어진다는 의미로서, 결국 밤 깊도록 잠 못 이루는 겨울밤을 일컫는 것이다. 그 밤에 의지할 것은 화로밖에 없다는 말을 작가는 '화로하고 다시 없으련만' 이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은 아마 문어체 문장이 아니라 그 지방 구어체 문장일 것이다. 그 지역에서만 쓰는 특유의 언어 습관일 것이다. 그게 옳다면 아마 내가 일컫는 '지방어'란 그 지역에서 채취한 낱말 하나하나보다도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엮어 쓰는 그 지역 특유의 언어 습관, 호흡 또는 톤(tone)이 될 것이다. '지방어'의 성격을 가름하는 데는 단어 하나

하나보다도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그 지역 특유의 '어투(語套)'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닝닝한 화로 냄새가 돈다.'도 멋있는 가운데 쉽지 않은 지방어이다. 뜨거운 불화로라면 그 불덩어리가 주체가 되어 그것을 담고 있는 화로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불화로가 식어지면 그 미지근한 불기운은 어디로 가고 그 대신 화로가 주체가 될 것이다. 따끈따끈한 열기는 어디로 가고, 미지근하게 타다 남은 재와, 그 재를 안고 있는 화로만 닝닝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고주배기 등걸불이 청솔가지 쪄다 땐 재보다 쉬 자는'지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의문스럽다. 고주배기 등걸불은 관솔불이고, 청솔가지를 태운 불은 솔잎 불인데, 아무렴 청솔가지 타는 열기가 세다고는 하지만 그 솔잎 재가 관솔불 재보다 더 오래간다는 말은 믿기지 않는다. '남은 불씨마저 화로 귓전에다 몬다.'도 멋쟁이 말 같지만 긴가민가하다. '귓전'은 원래 귓바퀴의 가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 말을 화로에 갖다 붙였을 때 그것은 화롯불의 중심부가 아니라 둘레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화로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둘레가 되는 것이다. 꺼져가는 불씨는 원래 화로의 중심부로 모으는 법이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남은 불씨마저 화로 귓전에다 몬다.'면 그건 불씨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헤뜨려 끄자는 말이 될 테니까,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문구의 소설 언어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른다. 서울 도심에서 자주 쓰지 않는 그 지역 특유의 낱말들이어서 어렵고, 그것들을 엮어 쓰는 그 지역 특유의 언어 습관, 또는 호흡 등의 어투가 지난하다. 이 말은 이문구 소설의 주제가 어렵다는 말과 다르다. 이문구의 소설치고 그 내용이 어렵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시골 농민들의 어려운 가난, 그 가난 속에서나마 웃지 못할 따스한 인정, 급변하는 세태 인심에도 불구하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하는 회고담, 이문구 소설의 주제는 주로 이러한 범주 안에서 확대·심화되는데, 이와 같은 주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니와, 실제로 잘 읽힌다. 이문구 소설이 어렵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오로지 문체 때문이지 내용의 탓은 아닌 것이다.

2.

지방어와 사투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암소』에서 따온 글이지만, 아래 말들은 거의 사투리에 해당한다.

「저녀리 자슥은--- 구구매(고구마)두 처먹어쌋더라, 자그매 구워, 화루 식는개비다. 화루 쥑이먼 콩너물시루 은단 말여.」

사투리는 지방어와 달라서 철자법이나 맞춤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현지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쓰면 그만이다. 모른다고 사전을 뒤적거릴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사전에는 없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없다고 해서 세상에도 없는 말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사전에는 없지만 누군가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나오는 말은 따지고 보면 문법학자들이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학자들에 의해 일단 걸러져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전에도 없는 말이 불편 없이 소통되고 있다면 그것은 육성의 언어일 것이다. 사전에도 없이 육성으로 소통되는 언어를 사투리라고 한다면, 육성의 언어를 규범화하여 사전에 올리면 그건 규범어가 된다. 육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이 알아들을 수조차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법이다. 설령 정확하게는 아닐지언정 어렴풋하게나마 알아듣기는 그쪽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육성의 언어는 표정을 수반하는 언어이며, 관습에 의거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저녀리 자슥'은 저놈의 자식인지, 저년의 자식인지, 혹은 저 녀석의 강조형인지, 어쨌든 '저 자식'을 강조하는 태도와 어조가 함께 실린 비속어이다. '구구매'는 아예 괄호 안에 넣어 그것이 고구마임을 밝히고 있으니

까 별 문제 없지만, '처먹어쌋더라.'의 '쌋'은 반복하는 행위를 말해주는 강세형 어간이어서, 먹고 먹고를 반복하며 많이 먹는 행위를 말해준다. '쌋더라'인지 '쌓더라'인지 '쌋'은 그 표기법마저 확실하지 않아서, '쌋'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쌓'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 인상적이다. '자그매 구워'의 '자그매'는 '자그마치'가 옳은 말이다. '마치'가 '매'가 되어, 너무 많이 굽지 말고 어지간히 구우라는 야유나 핀잔의 태도까지 가미된 것을 알 수 있다. '화루'는 '화로'이다. '화루 식는개비다.'의 '식는개비다.'는 '식는가 보다.'가 맞다. 다시 말하면 '자그마치 구워라, 화로 식는가 보다.'라는 말인데, 많이 먹어 배 터질까 봐 걱정이 아니라 화로가 식을까 봐 걱정이라는 그 말이 우스워 재미가 있다. 화로가 식으면 콩나물시루가 얼 테고, 시루가 얼면 콩나물이 자라지 않아 먹고 살기가 어려울 테니, 화롯불이 꺼지면 그게 걱정이라는 말인데, 중간에 배고픈 현실을 감추고 그렇게 '화루 쥑이면 콩너물시루 은단 말여.'라고 적은 것이다. 놀라운 수사법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사투리는『암소』전편에 걸쳐 재현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화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소설이 지문(地文)과 대화문(對話文)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암소』의 소설 언어는 지문에 주로 지방어를 쓰고, 대화문에 주로 방언을 구사한다. 같은 토속어이지만, 이와 같이 지문의 언어와 대화문의 언어가 확고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작중인물에 따라 각각 사투리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몇 문장 더 보기로 한다.

> 업쌔, 니까징것이사 뭣때미 잼이 안 오네? 주먹만헌 게 싹바가지 읍는 쇠리만 더럭더럭 헌단말여.(황구만)

> 허이구, 그 슨츌이 뱃구레가 오죽이나 큽댜? 다섯 투가리(뚝배기)나 처

먹구두 나뻐허더만…… (고랏댁) 아니 그러먼 황씨아저씨는 내 그 멫푼 안 되는 둔이 꼭 고리채루만 생각킵던 가유? 그러시먼 못쓔. 그래서는 쓰겄유? 글쌔 그게 워칙해서 뫼인 둔인딧 그 둔을 고리채루 예기시너냔 말유, 안 그류?(박선출)

사투리를 쓸 때는 철자법이나 맞춤법은커녕 띄어쓰기조차 표준어 문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작중인물이 발음하는 대로, 작중인물의 호흡에 따라, 그의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때그때 문맥이 끊기는 만큼씩만 받아 적으면 그뿐이다. '니까징것이사'는 '네까짓 놈이야말로'로, '헌단말여.'는 '한단 말이야.'로, '뭣때미'는 '무엇 때문에'로 띄어 써야 할 테지만, 여기서는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의 호흡이 그렇게 끊기니까, 붙일 데까지는 붙여 쓰다가 거기서 멈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각킵던 가유?', '그러시먼 못쓔.', '그래서는 쓰겄유?', '예기시너냔 말유.', '안 그류?'에 나타나는 그 지역 특유의 종지형 어미(終止型語尾)를 보면, 마치 실제 인물이 그 안에 들어가 대화하는 것 같다. 작중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데에, 그만큼 대화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대화는 발화자의 성격을 규정한다. 같은 방언이라도 황구만 씨는 황구만 씨 대로, 박선출은 박선출대로, 고랏댁은 고랏댁대로 각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언어를 갖고 있는 법이다.

3.

다시 토속어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근대소설사의 흐름을 보면 전에도 이와 같이 향토성이 짙은 토속어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들은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일찍이는 김유정이 여기 해당한다 하고, 김동리의 『무녀도』가 그러하다 하고, 심지어는 백석의 시가 토속성이 짙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농촌 소설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김유정의 경우,

아래 구어체 문장들을 주목해 볼 일이다.

① '장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②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고 한다./ ③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툽툽하게 생긴 얼굴이다.

김유정의 단편소설『봄봄』의 한 구절씩을 띄엄띄엄 옮겨 놓은 문장이다. 구어체 문장이 '말하듯 쓰는 문장'이라니, 그렇다면 문어체 문장은 '글 쓰듯 쓴 문장'이라는 말이 될 텐데, 이 말은 결국 육성의 언어와 문자의 언어를 구분하다가 생긴 말일 것이다. 육성의 언어를 문자화하면 구어체가 된다. 인용문 ①은 나와 장인과 점순이가 모두 다 함께 등장하는 문장인데, 이 경우 세 인물을 통어하는 서술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결국 서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 나를 설명하고, 장인님을 흉보고, 점순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가 작중인물이고, 동시에 서술자가 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작중인물과 서술자의 거리가 거의 없거나 밀착된 상태를 말한다. 서술자가 작중인물이고, 작중인물이 곧 서술자가 되었다. 서술자가 자기 이야기를 말하듯 써내려가니까, 여기에 농촌의 정황과 농민들의 삶이 실려 나와 '향토적'이라는 느낌을 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1인칭 소설이 다 향토적이란 말이냐, 하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이 소설의 구어체 문장을 분석하다 보니 서술자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서술자가 바로 농촌의 생활 습관과 기후 풍토를 구사하고 보니 결국 그의 언어가 향토적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문어체 문장은 작중인물과 서술자가 각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 거리 때문에 문어체 문장은 문법과 어투에서 꽤 정제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객관적 진술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말하자면 서술자가 작중인물을 떼어놓고 보느냐, 한데 붙여 놓고 보느냐에 따라 서술자의 감정이 배제되기도 하고, 개입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써온 대부분의 문장은 문어체 문장이다. 객관적이고도 규범적인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끔씩 나 자신만의 감정을 실어 상대방의 공감을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소설의 경우 이럴 때 작가들은 서술자와 작중인물을 하나로 엮어 육성의 언어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다. 육성의 언어는 세련되지 못하여 거칠지만 거친 만큼 생동하는 힘을 받아 작품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인용문 ②의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등이 그렇게 해서 생긴 아주 대표적인 구어체 문장이다. 사위가 장인을 설명하는데, '약이 오른다.'는 건 뭐고, '손버릇이 못됐다.'는 건 또 뭔가. 문어체 문장에서 이런 식의 어투를 구사했다면 아마 당장 비문(非文)이라고 추방당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는 처음부터 이 소설이 구어체 소설이 될 것을 자처했고, 또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의도된 비문을 구사하였을 것이다. 『봄봄』의 생명력이 바로 이와 같은 의도된 비문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 인용문 ③은 번복적인 진술을 통해 구어체 문장의 묘미를 살린 좋은 예다. 점순이가 '이쁜 계집애'에서 '개떡'이었다가 다시 '안해'로 탈바꿈하는 우여곡절과,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에서 개떡은 '아니고'로 바뀌더니 다시 '툽툽하게 생긴 얼굴이다.'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수사의 번복은 구어체 문장의 매력을 한껏 과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쯤에서 우리 시의 토속성에 대해서도 일부분이나마 보여주고 싶다. 토속적이면서도 좋기로 유명한 시는 백석(白石)의 시편들을 들 수 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어서/ 머리에 손깍지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윗글은 백석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의 일절이다. 전편의 삼분의 일 정도를 잘라서, 그나마 지면 관계상 시행을 구분하여 나열하지도 못하고, 다만 산문처럼 이어붙인 것이다. 허허벌판의 강추위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가 실토하는 절체절명의 고독은 차치하고라도, 시골 촌 동네의 토속적인 맛이 물씬 풍기도록 실감나는 사투리를 구사하여, 그것들을 구어체 어조를 엮어 낸 시인의 언어 감각을 실감한다.

4.

이문구의 『암소』는 5·16 이후 정부가 시행한 농어민 고리채 정리 사업이 야기한 농민들의 세태 인심을 흥미롭게 파헤친 소설이다. 높은 이자로 얻어 쓴 돈에 쪼들려 고통받는 농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채무자들로 하여금 고리채를 신고하게 한 것이다. 때마침 군에 입대하게 된 박선출은 그동안 머슴살이를 하여 모은 돈 8만 원을 주인 황구만에게 맡긴 적이 있었다. 황구만은 월 3부 이자로 그 돈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돈으로 직조 공장을 운영하지만 실패한다. 그때 박선

출이 제대를 해 오는 것이다. 황구만은 원금 8만 원과 3년간 이자 8만 6천 원을 합해 총 16만 6천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때 마침 정부의 고리채 정리 사업이 발표되고, 이에 황구만은 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그 대신 송아지를 길러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송아지는 자라 암소가 되고, 암소는 새로 송아지를 잉태하고, 그러자 배 속의 송아지를 두고 박선출과 황구만은 다시 새로운 갈등에 휘말린다. 배 속의 송아지는 처음부터 약속에 없는 송아지니까 줄 수가 없다는 황구만과, 그래도 그 송아지는 엄마 소에 달린 새끼니까 주어야 한다는 박선출과 그렇게 두 욕망이 충돌하는 것이다. 결국 돈은 챙겨보지도 못하고 암소는 동네 고사 날 술에 취해 죽고 마는데, 웃지 못할 이 한 편의 추억담을 작가는 작가 특유의 지방어와 사투리로 엮어, 순박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실감 나게 그려낸 것이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도 적고 싶다. 지난 단풍철에 김유정 문학마을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가서 김유정의 문학을 잠깐 소개하고, 모인 사람들과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 김유정의 토속어 내지 구어체 문장을 묻는 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토속적인 문장을 구사하면 나중에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노벨문학상에 도전하는 작가들도 많아졌고, 그러자면 먼저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김유정의 문장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날 김유정 마을에서가 아니라도 그동안 이런 질문은 여러 차례 받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답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다. 그날 김유정 문학마을에서도 그랬던 기억이 난다. 번역은 번역가에게 맡겨라. 작가는 자기 작품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면서까지 작품을 쓰지 않는다. 창작은 원래 자기 모국어로 하는 법이다. 제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작가라 할지라도 노벨상을 타기 위해 영어로 소설을 쓰지는 않는다. 작가가 소설을 창작한다는 것은, 모국어가 너무 좋아서, 모국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쓰는 그 자체를 즐기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어떤 외국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처음에 원작을 읽는 동안, 이 소설의 문체는 자기가 아는 어느 지역의 문체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언어와 감정에 맞춰 호흡을 맞춰나간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대답이라고 알아들었다. 먼저 우리글을 아름답게 쓰고 볼 일이다. 그들이라고 우두커니 앉아서 영어로 번역된 소설만 읽고 노벨상을 결정할 리가 있겠는가. 누군가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쓴 작가라고 입소문이 나면 그쪽에서 먼저 사실 확인을 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상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한글이다. 한글을 아름답게 썼다고 노벨상을 줄 만큼 한글이 스스로 유명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노력하는 수밖에. 한글이 위대해지는 수밖에 없다.